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이타현인회, 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2024년도 국제정책과 직원 소개

세계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올해 국제정책과 직원을 소개합니다.



과장
田吹 美紀
다부키 미키

외국인이 선택하는 곳, 사고 싶어지는 곳,
살고 싶어지는 곳, 찾고 싶어지는 곳.
이러한 오이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총괄)
西村 和芳
니시무라 가즈요시

정원 잔디 정리를 하다 보면
잡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

- 여권 심사 총괄
- 여권반 인재 육성



주간(총괄)
難波 一尚
난바 가즈히사

좌우명: 매일 최선 다하기

담당 업무

- 해외 전략 추진(총괄)
- 과 인재 육성



부주간
清田 弘祐
기요타 고스케

달콤한 간식 최고.

담당 업무

- 해외 전략 추진
- 웨일스 MOU



주임
安部 菜月
아베 나쓰키

세븐틴을 좋아합니다!

담당 업무

- 유학생 장학금 담당
- 외국인 인재 수용 및 공생 업무
(현 내 재류 외국인 지원)



주임
須藤 佳穂
스토 가호

햄버거가 좋아요.

담당 업무

- 일본어 파트너스 담당
- 인도네시아 교류 촉진



주임
嵯峨 慶子
사가 케이코

강아지를 좋아해요♡

담당 업무

- JET 프로그램
- 국제교류원 활동
- What's Up, Oita!



주사
麻生 陽子
아소 요코

K-POP을 좋아합니다.

담당 업무

- 여권 심사 및 발송
- 여권 업무 위탁
- 여권반 예산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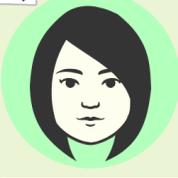
주사
生野 志保
이노 시호

스도쿠에 빠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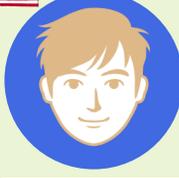
담당 업무

- 예산/결산/감사 담당
- 한국 교류 촉진

국제교류원



盧知榮
노지영



Austin Vaughn
오스틴 본



楊 佳
양지아

안내 말씀

'What's Up, Oita!'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2024년도부터 연간 4회 발행으로 변경됩니다. 9월에 발행 예정인 다음 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분고오노시에는 산의 자연과 에메랄드그린 빛의 맑은 물을 즐기는 사우나, 종유석 동굴을 욕조 삼아 즐기는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온천은 없지만 야외 사우나의 성지로 최근 일본 전국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사우나의 마을’에서 즐기는 양조장 투어! in 분고오노시

또한,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하고 문화를 계승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규슈 지역에서 유일하게 ‘일본 지오 파크’와 ‘유네스코 에코 파크’로 선정되었는데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암반 사우나 문화(암벽에 구멍을 내고 약초를 태워 증기를 만드는 방식)의 특색을 살리고 대자연에서 즐기는 야외 사우나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지난 2021년에 분고오노시를 ‘사우나의 마을(サウナのまち)’로 선언했습니다.

〈사우나의 마을 분고오노시〉

https://www.bungo-ohno.jp/categories/gaiyou/si_kankou/sauna/



상세 페이지

제13회 ‘양조장 돌아보기’ 행사 개최

더불어 대대로 이어져 일본주·소주·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양조장 네 곳에서는 분고오노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년 양조장 합동 공개 이벤트 ‘분고오노 양조장 돌아보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열린 제13회 행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양조장을 돌아보고 맛 좋은 술을 맛보며 따뜻한 봄날을 즐기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치노에키 다노우라라 2024년 7월 7일(일)

바
다
와
산
과
라

OPEN!



오픈 이벤트
개최 예정
(선물 증정, 공연 등)

포인트 1



최고의 위치

2층에서 베푸만이 한눈에 보이며 전망 데크에서 바라보는 절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포인트 2



'소리'가 들리는 광장

오이타가 서양 음악의 발상지인 점에 착안하여 음악이 테마인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포인트 3



실내에 노면 전차가?

전시 중인 오이타-베푸 노면 전차는 다노우라라의 상징적 요소입니다.



홈페이지

문의

오이타시 상공노동관광부 오이타 매력 홍보국
TEL. 097-574-6195 / 오이타시 니야게마치 2-31

[운영]
주식회사 오토무스비 오이타
TEL. 097-594-4901



미치노에키 다노우라라
오이타시 오야자 간자키
아자 가지와라 1228-9



<https://www.tanourara.jp/>

퇴임 인사



중국 국제교류원
양장화(楊江華)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2024년 4월 4일 자로 퇴임한 중국 국제교류원 양장화입니다.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한 시간은 저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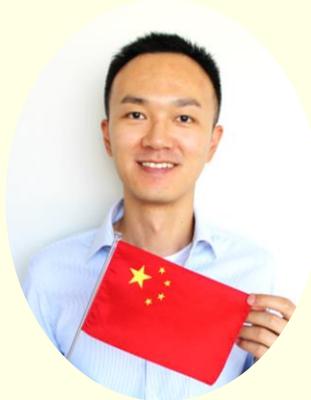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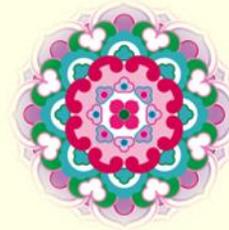
생애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처음엔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친절한 국제정책과 동료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덕에 오이타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으며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이타에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온천, 푸른 바다, 맑은 강, 어디에 가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있고, 제 고향에 비해 날씨가 따뜻하여 겨울이 많이 춥지 않기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이타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데우치소바, 마키즈시, 다도, 우사 신궁 축제 등 다양한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방문 업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그룹 활동 수업을 하거나 클럽 활동을 견학하고, 중국어 강좌와 중국어 프리 토크 클래스를 실시하며 많은 현민 분들과 교류하고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처음 배우고 겪은 많은 경험들은 제 인생의 자산이 되겠지요.

이제 저는 중국에 돌아가 직접 본 아름답고 흥미로웠던 일본에 대해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전하며 예전처럼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이타현민 여러분, 그리고 늘 'What's Up, Oita!'를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임 인사



중국 국제교류원
양지아(楊佳)

따자 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국제교류원 양지아(楊佳)입니다.

저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불의 민족' 이족 출신으로, 동남아시아에 인접한 윈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어는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일본어 통역을 공부했는데요, 1학년 2학기부터 일본어를 배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성적에 맞추어 법학부를 선택했지만, 수업 시간에 고대 사체 관찰법에 관한 장황한 설명을 듣거나 보기 힘든 사형 사진을 보는 것이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를 버텼던 이유는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둔다면 법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무렵부터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전과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비교적 쉽게(?) 전과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외국어 학부를 목표로 도전한 결과 당당하게 일본어 학과 전공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동시에 온갖 좌절과 힘든 일을 겪는 저의 일본어 전공 인생이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생활은 생애 첫 해외 장기 체류인데요, 쓰레기 배출 방법과 자전거 교통 법규 등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아 실수도 적잖이 하고 있지만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또한, 중국과 '상춘의 고장' 윈난성, 다양한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를 품은 소수 민족에 대한 것 등 오이타현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오이타현의 관광지과 지역 음식 등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리텐, 휴가돈, 류큐돈 모두 맛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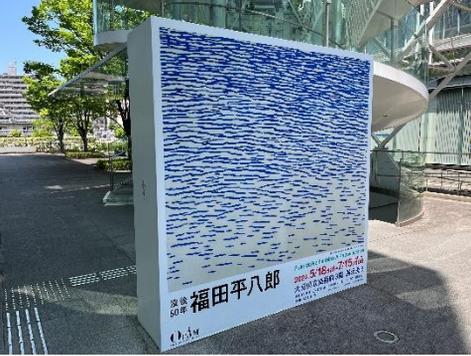
앞으로 1년 동안 국제교류원으로서 일본에 대해 알아가고, 중국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메지론을 찾아라

Fukuda Heihachiro



기사 작성: 오스틴 본



후쿠다 헤이하치로 회고전

예술을 좋아하지만, 언젠는 컴퓨터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전시회나 미술관을 가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이타현립미술관(OPAM)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여러 차례 작품을 보며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고, 이번 기사에서 소개할 ‘작고 50주기 후쿠다 헤이하치로’ 전시회를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후쿠다 헤이하치로(1892~1974)는 오이타현 출신 화가로 OPAM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사실적인 화풍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표작은 생각보다 추상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이는 피카소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추상적인 화풍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카소와 다른 점은 추상적이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소신은 제가 가지고 있던 미술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만일 컴퓨터로 JPEG 이미지 데이터를 보았다면 시대별 변화와 기법이 발전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을뿐더러, 작품의 섬세함도 의도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테지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그렸던 수없이 많은 밑그림과, 당시 후쿠다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서 실패작 취급을 받아 지하실에 방치하다시피 보관하여 곰팡이가 핀 자국이 있는 대표작 ‘구름’, 그리고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전시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작품 ‘구름’에 담긴 실패의 이야기와 그의 소신을 알 수는 있겠지만, 뛰어난 작품의 배경 속에 담긴 시간의 흐름과 작품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직접 본다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몸소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예술입니다. 만약 예전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OPAM에서 후쿠다 헤이하치로의 작품을 천천히 ‘돌아보기’를 추천합니다. 어쩌면 저처럼 예술에 관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작고 50주기 후쿠다 헤이하치로’ 전시회는 OPAM에서 진행 중이며, 전시 전기(5월 18일~6월 16일)에서는 후쿠다가 평생에 걸쳐 제작한 작품 106점이 전시됩니다. 전시 후기(6월 18일~7월 15일)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HAT'S UP, OITA!



기사 작성: 노지영

수많은 올드카와 함께 그 시절의 추억에 잠기다

쇼와노 마치 레트로카 대집합 분고타카다시

요즘 이따금 학창 시절 사진을 찾아보거나 10년도 더 된 히트곡을 들으며 ‘그땐 그랬지’라며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노래와 같은 매개체가 있으면 더욱 생생하게 추억에 잠길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라면 어떨까.

지난 3월 17일, 분고타카다 쇼와노 마치 주차장에서 일본 쇼와 시대(1926~1989)의 정취가 느껴지는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는 ‘쇼와노 마치 레트로카 대집합’이 열렸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깨끗하게 관리된 현역 올드카 60여 대가 한자리에 모여 과거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1960~70년대를 달리던 차를 중심으로 무려 1928에 생산된 포드 모델 A 등을 감상할 수 있었다(자동차의 평균 수명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구경할 때 근처에 차주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 차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귀중한 기회이니만큼 자동차 애호가들이 차주에게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올드카 전시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 잡화 베품시장, 차주 인터뷰, 토크쇼, 무대 공연, 그리고 1957년 생산·2009년 복원된 보닛 버스(프런트엔진 버스) ‘이스즈 BX141(쇼와 로망호)’ 탑승 기회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들은 물론 잘 모르는 이들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올해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한 차를 선뜻 보여 준 차주 덕분에 특별한 경험이 가능했던 이 행사는 매년 3월에 분고타카다에서 개최되니 쇼와의 올드카를 보고 싶은 분은 내년 이벤트에서 추억에 잠겨 보기를 바란다.



WHAT'S UP, OITA!



기사 작성: 노지영

국내 120만 부 판매 초대형 베스트셀러 원작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촬영 장소

1950년대의 정취가 느껴지는 분고타카다는 한국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분고타카다의 대표 관광지인 쇼와노 마치를 비롯해 마타마 해안 등 시내 곳곳에서 영화에 등장한 반가운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쇼와 로망 참고에서 영화 촬영지 가이드맵(한국어)을 배부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나미야 촬영지 투어를 떠나 보자.



나카노 생선가게 中野鮮魚店
: 생선가게 '우오마쓰'로 사용된 장소



나미야 잡화점 간판 ナミヤ雑貨店の看板
: 오픈 세트에 사용된 간판(쇼와 로망 참고 전시)



묘주지 절 妙壽寺
: 마쓰오카의 할머니 장례식이 치뤄진 장소



미야마치 로터리 宮町ローター
: 나미야 잡화점 오픈 세트가 설치되었던 장소



가쓰라바시 다리 桂橋
: 영화 후반부에서 아쓰야가 달려간 장소

노지 in 오이타

국제교류원의 일상

- 37화 -



글/그림 노지영



일본 방문 후일담 Q&A



이번 **화**까지
다 읽은 당신이
진정한 애독자! /3

Q. 안경 이야기 진짜예요?



바다는
예뻐 보이네...
(안보임)

놀랐게도 실화입니다... 오후
부산 출발-다음 날 오전 오사
가 도착 노선이었는데, 도착하
는 날 일출을 보겠다며 아침에
감판으로 갔다가 그렇게 됐어
요. 여러분도 배를 탈 땐
부디 조심하세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어디인가요?

합창부 연습중



영성
열심히 하자...



아무래도 중학교를 꼽을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
처럼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
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수업이 끝나고 열정적으로 무
언가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Q. 자유시간에 가차는 했나요?



실제로
당시에
찍은 것들~

네^^ 가차도 하고... 만화책도
구경하고... 그랬답니다...
부끄러우니 설명은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ㅎㅎ

Q. 그때 사귀었던 일본인 친구와 지금도 연락하나요?



난 잘있어!
이번에 내가...

잘지내?

교류 후에 4년 정도 메일로 연
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은 끊겼어요. 당시 저는 일본
어를 거의 못 해서 서로 번역
기를 사용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Q. 야무지게 샀다는 기념품은 뭐가요?



아가용
장난감 드럼

사놓고
눈 마주치는 거
무서워서 밤마다
들려놓고 잠;;



막내 동생에게 줄 장난감 드럼
이예요! 당시 너무 어려서 연
주해 준 적은 없지만... 그
리고 '저걸 누가 사?' 싶은 일
본 전통 기모도 인형도 사 왔
답니다. 아마 아직 본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Q.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나요?



쿠-웅

밥이
차기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
는데, 나라 시청을 예방했을
때 도시락을 받았는데 음식이
다 식어 있어서 깜짝 놀랐던
건 기억나요. 늘 더운 밥만 먹
다가 찬밥을 먹으려니
낯설더라고요!

이상으로 Q&A를 마칠게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 독자분이 계시다면
첫 방문 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첫 방문
어땠어요
~?



익명의 천사님께 전하는 감사 인사



한국 국제교류원 노지영

3월의 어느 날 밤, 센트 포르타 주오마치 상점가 입구 쪽의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지갑을 잃어버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출소에 전화를 했고, 정말 다행히도 어떤 분께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맡겨 주셨다며 수령하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 찾으러 갔지만, 주우신 분께서 개인 정보를 알려 주시지 않아 감사 인사를 할 방법이 없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인 재류 카드도 들어 있어서 만약 지갑을 못 찾았다면 불법 체류자가 될 뻔했고(농담), 무엇보다 분실물을 주웠다고 해도 모두가 경찰서에 맡겨 주시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해 봅니다. 제 지갑을 주워 주신 익명의 천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누군가의 지갑을 주우면 꼭 분실물 신고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악기는 잘 못 다루지만 즐거워



미국 국제교류원 오스틴 본

음악을 자주 듣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주 노래방을 가거나 리듬 게임을 했기에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했던 리듬 게임 중에 전용 기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타 히어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렴한 컨트롤러를 구입하여 오랜만에 플레이해 보니 어렸을 때보다는 잘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렇게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배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관심이 있던 일렉 기타와 실제 기타를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리듬 게임 '락 스미스'를 구매했고, 말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무언가 '해방감'이 느껴져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아픈긴 하지만요.



인생 첫 오이타, 조금은 미련스러운 이야기



중국 국제교류원 양지아

오이타에 오기 전에 이곳에서 사용할 대형 가전 렌탈을 미리 신청했고 전임자에게 소형 가전을 물려받아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었지만, 사무용 의자와 바닥에 깔 러그가 필요해 오이타에서 맞은 첫 토요일에 시내 동쪽에 있는 어느 대형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시간과 타는 방법을 미리 공부한 덕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쇼핑을 잘 마친 것까지는 좋았으나, 너무 여유롭게 보낸 탓일까요. 집에 가는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기에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끝에 천천히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가방을 짊어지고 인적이 드문 큰길을 따라 40분 정도 걸은 후에 발견한 버스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사실 저는 걸으면서 거리도 구경할 수 있었고 3km 정도밖에 걸지 않았기에 오히려 좋았는데,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쪽으로 곧바로 가면 전철역이 있어 버스가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첫 오이타 생활, 쉽지 않네요!



여러분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알려 주세요!

(※양식 자유)

〈기사제공/문의〉

- 발행: 오이타현 국제정책과
- 담당: 사가(嵯峨), 나카야마(中山)
- 메일: a10140@pref.oita.lg.jp

募集中!

